

# 사무직 기혼여성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 실태 및 영향요인\*

## Division of Household Labor between Married Female Clerical Workers and Their Husbands

대구대학교 소비자가족학과  
교 수 조 희 금

Dept. of Consumer and Family Science, Taegu University

Prof: Hee-Keum Cho

### 〈 목 차 〉

- |                       |               |
|-----------------------|---------------|
| I. 문제제기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Given the dramatic increase in the percentage of married women working in clerical occupations and the inflexibility of work commitments for employees working in this domain, this paper investigates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between married female clerical workers and their husbands, and their sources of external help. The total housework time of couples, the percent of total housework done by husbands, and a scale measuring the wife's perception of the frequency with which her husband does specific household tasks are all used to measure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between couples.

Data for 143 couples were gathered from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the time dairies that included one weekday and one weekend day.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The couples receive substantial support in housework from their mothers.
- 2) Wives spend an average of 23 hours and 26 minutes per week on household labor, whereas husbands spend an average 7 hours and 7 minutes per week. Husbands do an average of 20.9% of all housework done by the couples.

Wives typically perceive that their husbands are not frequently participating

\* 이 논문은 1997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일부지원에 의한 논문임

in a variety of household tasks(mean = 2.88 on a 5-point Likert scale where 1= never and 5=always).

3) Multivariate analysis reveal that working hours is negatively related to while the presence of childs under 6 years old is positively related to total housework. Time availability variables(e.g. working hours and the presence of child under 6 years old) and relative resource variables(e.g. the rate of wife's income on that of husband) are related to the percent of total housework done by husbands. The sex-role attitude variables are related to the wife's perceptions of the frequency with which her husband does specific household tasks.

## 1. 문제제기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여성노동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증가해 왔으며, 앞으로도 여성노동력의 노동시장 진입은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0년간(1963-1993) 전체 여성취업자가 2.9배 증가한 반면, 사무직 여성취업자는 39.6배 증가해서 여성취업자 가운데 가장 크게 증가한 직종은 사무직이다. 사무직내 여성비율은 같은 기간동안 11.3%에서 41.1%로 증가하였으며(통계청, 1994), 1996년 사무직내 여성비율은 51.6%이다(한국여성개발원, 1997). 그런데 이미 주요 선진국의 사무직내 여성비율은 60-80%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산업환경 역시 지속적으로 서비스 산업화하고 있으므로 사무직 노동에서의 여성노동 수요는 더욱 증가하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사무직 여성노동자는 미혼여성으로 대표되어 왔고, 통계적으로도 다른 직종에 비해 기혼의 비율이 적으며, 연령별 분포도 20-24세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88년부터 실시된 남녀고용평등법의 영향으로 결혼퇴직제가 폐지되고,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인식 변화 및 개인, 가정 여건의 변화 그리고 기혼여성노동에 대한 수요 등 여러요인에 의해 사무직에서도 기혼여성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취업여성 가운데 사무직 종사자의 비율증가 및 사무직내 기혼여성의 비율 증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에서 보면, 사무직 여성 종사자의 증가와 특히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사무직 내 기혼여성의 증가

〈표 1〉 사무직 여성취업자

(단위: 천명, %)

	총여성취업자	사무직여성 종사자	사무직여성내 기혼비율
1980	5,217	415( 8.0*)	(10.1)
1985	5,833	597(10.2)	(14.1)
1990	7,375	940(12.8)	(19.4)
1995	8,224	1,277(15.5)	(27.1)
1996	8,434	1,323(15.7)	(30.8)

\* 전체여성 취업자 가운데 사무직의 종사 비율

자료: 「1994, 1997년 여성통계연보」(한국여성개발원, 1994; 1997)에서 재구성

가 두드러진 것을 볼 수 있다. 기혼여성의 취업은 전통적으로 가정생활의 책임을 전담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양립이라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취업한 기혼여성들의 노동부담으로 연결된다(조희금 외, 1998a; 1998b). 이들이 겪는 가정생활부담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자녀양육을 포함한 가사노동의 수행이다. 취업기혼여성이 겪는 노동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기혼여성노동력의 활용이라는 측면, 그리고 가족복지나 여성복지의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지난 정부의 정책에도 반영되어 '여성사회참여확대를 위한 10대 과제'(조은, 1996)에 나타나고 있으며, 현 정부에서도 '고등학교 급식의 확대 실시' 등으로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1996년 취업여성 자녀(0-5세)의 보육시설 수탁률 추정치가 25.9%(한국여성개발원, 1997:295)에 불과한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취업기혼여성들이 사회적인 차원에서 노동부담의 대처방안을 찾는 데는 한계가 있다.

결국 취업기혼여성들은 개인차원이나 가정차원에서 노동부담을 해결할 수 밖에 없고, 가족원간의 가사노동 분담은 취업기혼여성이 대처할 수 있는 가정차원의 좋은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어린자녀가 있는 사무직 기혼여성이 취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가정차원에서 가사보조자나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 노동시장 환경이 기혼여성의 산전산후 휴가를 60일로 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어린이집 등에서는 아이가 만 3세가 되어야 맡아주기 때문에 생후 2개월부터 3세가 될 때까지는 현실적으로 누군가가 아이를 맡아주지 않으면 부인이 취업을 계속할 수 없다.

한편, 부부간의 가사노동 분담은 취업기혼여성의 노동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직장일 중심으로 편중되어 있는 기혼남성의 생활을 가정생활을 포함한 다양한 생활경험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측면을 동시에 가진다. 이러한 경험은 기혼남성이 가정생활이나 자녀양육 및 교육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립적인 생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이기영 외, 1997;98).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중요한 직종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사무직 기혼여성의 가정생활 실태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들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은 어느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취업을 지속하고 있는 사무직 기혼여성 가정의 가사보조자 실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가사노동 분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어떤 것들인지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사무직 기혼여성 부부의 가사노동분담 실태는 어떠한가?
  - 1-1 사무직 기혼여성 가정의 가사보조자 실태는 어떠한가?
  - 1-2 사무직 기혼여성 부부의 가사노동분담 실태는 가사노동시간, 상대적 분담 비율, 남편의 가사수행실태를 통해서 볼 때 어느정

도인가?

2. 사무직 기혼여성 부부의 가사노동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 1. 사무직 기혼여성 노동의 특성

1996년 사무직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4세 이하가 전체의 54.6%, 자녀출산 및 양육초기라고 볼 수 있는 25-34세가 31.9%, 35-44세 9.6%, 45세 이상의 연령층에는 단 3.9%만이 분포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7;167). 그러나 이를 1980, 1990년도의 연령별 분포와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있다. 1980년에는 전체 사무직여성의 82.4%가 24세 이하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1990년에는 24세 이하가 69.8%였다. 이처럼 사무직 여성의 연령별 분포가 급격히 변화하고는 있으나 사무직은 아직 미혼여성의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산업화초기의 사무직은 주로 교육을 받은 남성들이 수행했으며, 이들은 경영인이나 관리인으로 상승이동이 가능한 비교적 높은 지위의 직종이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사무직 노동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분화가 일어나서 일의 구상, 기획에 해당되는 정신노동 부분과 이를 문서로 만들고 정리하고 연락하고 계산, 보관하는 등의 육체노동에 가까운 하위사무직으로 나누어졌다(한국여성민우회, 1989). 이 과정에서 하위사무직을 여성이 담당하게 되었으며, 그후 사무자동화의 도입은 더욱 사무노동의 탈숙련화를 초래하여 사무원이 작업과정의 전체적 조망을 갖지 못한 채 단순·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즉 사무직노동의 여성화는 이러한 사무직의 지위하락과 상관이었다(김태홍 외, 1995).

한편, 작업환경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사무직 여성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매우 취약한 상태로, 고용형태가 불안정하고 사무자동화에 따른 업무단순화 및 컴퓨터작업의 증가로 작업조건이 열악하여 VDT 증후군이나 경관원증 등의 직업병에 쉽게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조옥라, 1985; 한국여성민우회, 1989; 이방윤, 1989; 심광숙, 1990; 유희정, 1991). 이러한 노동조건과 자녀출산 및 양육을 지원 하는 근접환경 조건의 부족은 사무직 여성노동자들이 자녀출산 후 취업을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서지원, 1997). 즉, 사무직 여성의 자녀 출산후 취업중단은 자녀양육과 가정생활의 책임이 전적으로 여성에게 주어져 있지만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가정 및 사회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제도적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결혼퇴직제가 폐지되더라도 자녀양육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취업이 어렵게 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이후 결혼 및 자녀양육기에 있는 연령의 사무직 여성비율이 증가한 것은 1980년대 후반의 결혼퇴직제 폐지, 여성정년폐지 등을 이루어 낸 여성노동운동의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배우자의 육아휴직을 규정한 1995년의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과 결혼퇴직제 폐지가 전산업의 사무직으로 확산되고, 보육시설이 확충되면 사무직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의 비율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무직 기혼여성들은 자신의 긴 수입노동시간으로 가정생활에 제약을 느끼고 있으며, 이들의 남편들도 부인의 직장생활이 가정생활 가운데 특히 자녀돌보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다(조희금, 1997).

## 2. 부부간의 가사노동분담

### 1) 가사노동분담의 측정

가사노동분담에서 가장 분명한 것은, 여성의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가사노동은 여성이 담당하고 있으며, 여성의 취업증가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은 아직 크지 않다는 것이다. 연구에 따른 부부간 가사노동분담의 차이는 대부분 어떻게 가사노동분담을 측정했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가사노동분담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Shelton, 1996;300-302). 첫째는 시간사용일지(time diary)를 이용하여 하루 24시간 가운데 가사노동에 사용한 시간을 측정하는 것

이고, 둘째는 가사노동의 각 항목에 대해 얼마나 시간을 사용했는가를 직접 질문하는 것이다. 셋째는 가사노동 각 항목에 사용한 시간보다는 누가 그 일을 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측정하는 방법이다.

시간사용일지를 이용하는 방법은 지난 일을 회상하는데서 오는 오차의 문제나, 중복행동의 처리라는 문제가 있지만, 시간사용에 관한 가장 강력한 조사방법으로 추천되고 있다(Harvey, 1993). 가사노동에 사용한 시간을 직접 질문하는 방법은 시간사용일지를 사용하는 것에 비해 가사노동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가끔하는 일보다는 빈번히 일어나는 일의 경우에 시간이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 예를들어 기혼남성의 평일과 휴일 가사노동시간을 거의비슷한 시기 측정한 연구에서, 시간사용일지를 사용한 경우 전일제 취업주부의 남편이 평일 23분, 휴일 2시간 11분, 전업주부의 남편이 평일 14분, 휴일 1시간 40분의 가사노동에 참여한(이기영 외, 1997; 103) 반면, 직접질문에 의한 조사에서는 취업주부의 남편이 평일 2시간 21분, 휴일 4시간 30분, 전업주부의 남편이 평일 1시간 38분, 휴일 3시간 41분의 가사노동을 한(조미환 외, 1997; 378)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즉 두 연구에서 취업주부 남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이 약 2시간 정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차이는 조사대상의 차이에서 오는 것일 수도 있으나 많은 부분 측정방법에서 기인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와같은 문제때문에 측정방법뿐 아니라 가사노동분담의 양적인 연구방법이 갖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한다(문숙재 외, 1995).

부부간의 가사노동분담은 가사노동에 소비하는 절대적 시간량뿐 아니라 상대적 분담비율을 사용하여 분석되기도 한다. 가사노동을 누가 수행했는가에 관심이 있는 연구에서는 주로 가사노동의 수행비율을 비교하게 되고(이미숙, 1995), 가사노동의 성별분리 정도를 계산하거나(박주희 외, 1995; Blair & Lichter, 1991), 평등지수를 산출하기도 하며(이기영 외, 1997; Horiuchi, 1997), 상대적 분담비율을 측정하기도 한다(문숙재 외, 1997; 이기영 외, 1997).

## 2) 가사노동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부부간의 가사노동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려는 연구들은 크게 가사분담의 구조적인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과 경험적 연구에 의해 영향요인을 밝히려는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Shelton, 1996; 303 - 309).

구조적 요인: 여성이 담당하는 가사노동과 여성의 낮은 지위를 연결시켜 설명하는 여성학자들은, 여성들이 가사노동을 전담하게 된 원인을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에서 찾고 있다. 이들의 연구는 가사노동의 분담을 사회구조적인 요인에서 찾으려 했다는 특징을 가지나, 이런 요인들의 영향을 검증하는 방법에 일관성이 없고, 그것의 유용성을 경험적으로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경험연구 : 양적인 경험연구에서 부부간의 가사노동분담을 설명하는 이론들은 상대적 자원(relative resource), 이용가능한 시간(time availability), 성역할관념(sex ideology) 등의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사용한다.

상대적 자원을 요인으로 보는 설명은 가사노동을 부정적인 것으로 가정하여 상대적으로 자원이 많은 쪽이 가사노동을 적게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상대적 자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자원은 소득으로, 부부간의 소득차이가 적을수록 가사노동분담이 더 평등하게 이루어진다. 여기서 중요한 관계는 소득과 가사노동시간과의 관계이고, 이런 관계는 가계가 자신이 가진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배분하려고 한다는 Becker의 가계생산모델에도 사용된다. 성역할관념은 부부가 근대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질 때 부부간의 가사노동분담이 더 평등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더 평등주의적이고 근대적일 때 부부간의 가사노동분담이 평등해져서 남편의 가사노동 수행이 늘어난다고 설명한다. 이용가능한 시간을 요인으로 보는 연구들은 부부의 가사노동 수행은 자신들이 이용가능한 시간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는 요구가 있을 때, 가사노동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로 사용되는 지표는 부부의 수입노동시간과 자녀의 상태이다.

이외에도 가정생활주기에 따라 또는 다른 사람의

보조 유무 등 여러 요인들이 부부간의 가사노동분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 설명되고 있다.

우리나라 부부의 가사노동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한 많은 선행연구들은 이들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남편과 부인의 가사노동분담을 설명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박민자, 1992; 박주희 외, 1995; 문숙재 외, 1997; 조미환 외, 1997).

## Ⅲ.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조사대상이 사무직에 종사하는 기혼여성 부부이므로, 기혼여성이 일정비율 이상 종사하는 직장을 연구자가 사전조사를 통하여 선정하였다. 사무직에 기혼여성이 근무할 수 있는 직장은 대표적으로 이미 1970년대 부터 결혼퇴직제가 폐지된 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우체국, 동사무소, 구청 등의 하위직 공무원, 대학, 병원, 통신공사 등의 공공기관 등이다. 그러므로 이들 가운데 사전 답사를 통하여 대상기관을 선정하고 협조를 구했으며, 선정된 기관을 조사원이 방문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질문지를 배포하였다. 질문지를 주면서 기재요령을 숙지시킨 후 며칠 후에 가서 회수하였으며, 부실한 경우 다시한번 부탁하여 회수하였다. 질문지는 남편과 부인이 각각 기입토록 하였으나, 남편의 시간사용일지는 부득이한 경우 부인이 남편에게 질문하여 기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원은 사회조사방법론을 수강한 대학생으로 하였다.

예비조사는 1996년 7월 10일 - 16일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예비조사 후 질문지를 수정하여 본조사는 7월 22일 부터 8월 5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총 160쌍의 질문지를 배포하여 150쌍이 회수되었으며, 그 가운데 부실 기재된 것을 제외한 143쌍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방법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가사보조자의 상황 및 부부간의 가사노동 분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분포, 백분률, 평균을 사용하였고, 부부간의 가사노동 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

악하기 위해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2. 척도의 구성

### 1)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사무직 기혼여성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은 시간사용 일지(time diary)를 사용하여 평일과 휴일 각 1일씩의 시간사용 내용을 조사하였다. 시간사용일지는 하루의 생활내용을 29가지 행동으로 나누어 제시한 사전코딩(precoding) 방식을 사용하였다. 주당 가사노동시간은 평일과 휴일의 가사노동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우리나라는 국가 공무원을 비롯해 대부분의 노동시장이 주 5.5일 근무와 1.5일 휴일이라는 근무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주당 가사노동시간의 환산도 이런 방식을 채택하여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사용하였다.

$$\text{주당 가사노동시간} = (\text{평일 가사노동시간} * 5.5) + (\text{휴일 가사노동시간} * 1.5)$$

### 2)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률

부부간의 가사노동 분담률은 가사노동에 투여하는 남편과 부인의 가사노동시간 합계에서 남편과 부인 각각의 가사노동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즉 부인의 분담률과 남편의 분담률을 합하면 1이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률을 지표로서 사용한다. 이는 각자의 절대적인 가사노동시간을 비교하게 되면 분석단위가 개인이 되어 실질적인 의미의 부부간 가사노동분담을 측정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문숙재 외, 1997; 347). 그러므로 부부단위의 상대적인 가사노동분담을 측정하기 위해 부부간의 가사노동분담률을 사용하였다.

### 3) 남편의 가사노동 수행 실태

부인은 남편이 어느정도로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는가의 척도이다. 부부 각자는 자신의 가사노동수행을 더 많이 인정하고 상대방의 가사노동을 적게 인지하는 경향이 있어서 둘의 평균치를 사용하기도 하나(이미숙, 1995; 61), 여기서는 부인이 가사노동의 주담당자이고 남편이 어느정도로 수

행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부인이 평가한 남편의 가사노동수행 정도를 지표로 사용하였다. 즉 각 가사노동 영역에 대해 남편의 수행정도를 '전혀 안한다'(1점)에서 '항상 한다'(5점)에 이르는 5점 리커트척도로 측정하였다.

### 4) 상대적 자원 변수

상대적 자원 변수로 가장 중요한 소득은 남편의 소득에 대한 부인의 소득비를 계산하였다. 한 가정을 기준으로 파악할 때, 각자의 절대적인 월소득 크기 보다는 부인과 남편의 상대적인 소득비율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다. 부인 소득비는 부인소득/남편소득 \* 100으로 계산하였다. 또 다른 경제 자원 변수인 직업지위의 차이는 측정이 불가능하였고, 교육수준은 부부간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 5) 시간자원 변수

시간자원변수로는 이용가능한 시간으로 남편과 부인 각각의 수입노동시간을 측정하였다. 수입노동시간에는 근무시간과 출퇴근 시간 및 직장에서의 식사 및 휴식시간을 모두 포함하였다. 수입노동시간은 수입을 버는 것과 관련하여 소비되는 총시간으로 이시간 동안에는 실제로 가사노동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수입노동시간도 주당 총 수입노동시간을 계산하였다. 시간사용에 대한 요구는 자녀의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6세이하 자녀의 유무를 변수로 선정하였다.

### 6) 성역할태도 변수

성역할태도는 단일척도로 구성하였다. 즉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찬성'(1점)에서 '매우 반대'(4점)에 이르는 4점 리커트척도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더 근대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주는 그 외의 가정환경 변수로 가정생활주기와 가사보조자 유무를 들 수 있다. 그런데 본 조사에서 가사보조자는 자녀의 연령과 매우 밀접한 상관관이 있으므로 다중공선성의 문제

를 고려하여 가사노동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에서는 6세 이하의 자녀 유무만을 가변수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가정생활주기 역시 자녀의 연령 변수에 의해 통제되었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먼저 본조사대상자의 직장별 분포는 은행, 농협,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에 38명 (26.6%), 동사무소, 구청, 도청, 우체국 등의 공무원으로 46명(32.2%), 대학교, 병원, 전화국 등의 공공기관에 59명(41.3%)이 종사하고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2>에 나타나 있다. 조사대상자인 사무직기혼여성의 평균연령은 32.4세이고 남편은 35세로 전체 대상자의 60% 이상이 30대이다. 이는 사무직 여성의 전체적인 연령 분포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사무직에 종사하는 여성은 기혼의 경우라도 연령이 낮다. 교육수준은 중졸이하는 없었으며, 부인은 절반가량인 49.6%가 고졸이고 50.4%가 전문대졸 이상이었으며, 남편은 64.3%가 대졸 이상이었다. 1996년 전체 사무직 여성의 교육수준이 중졸이하 5.0%, 고졸 60.8%, 대졸 34.2%(한국여성개발원, 1997)인 것과 비교하면, 본 조사대상의 교육수준이 높다. 부인의 월평균 소득은 119.6만원이었으며, 남편은 167.5만원으로 가계소득에서 부인의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은 41.7%로 절반수준을 조금 밑돌고 있으나, 남편 소득에 대한 부인소득 비율은 77.6%를 차지하고 있었다. 출퇴근시간을 포함한 주당 총 수입노동시간은 부인이 평균 58.1시간, 남편이 평균 63.2시간으로 남편의 수입노동시간 길었다. 성역할태도는 남편에 비해 부인의 태도가 더 근대적이었다. 사무직 기혼여성 부부의 평균 결혼연수는 5.5년이었으며,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집은 전체의 60.1%이다. 가사보조자가 있는 가정이 50.7%, 없는 가정이 49.3%로 절반의

가정에 가사보조자가 있어서 가사보조자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표 2>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남편의 직업은 같은 사무직이 54.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판매서비스직(19.1%), 전문행정직(14.8%), 생산·노무직(6.3%) 순이었으며 무직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4.9%가 있었다. 또 자녀수는 평균 1.24명이며 2명의 자녀를 가진 가정이 38.8%로 가장 많았다. 자녀가 0명인 경우도 20%가량 있었는데 이는 신혼초로 아직 자녀가 태어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본 조사대상 사무직 기혼여성이 갖는 일반적인 특성을 전체 사무직 여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연령이나 교육수준, 월소득이 높고 근무연수 또한 길다.<sup>1)</sup> 사무직은 일의 특성상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전일제 취업이 대부분이므로, 가정생활주기 초기에 해당하는 이들의 가장 큰 가사노동 문제는 자녀양육이다.

##### 2. 가사노동분담 실태

###### 1) 가사보조자의 실태

한 가정의 부부간 가사노동 분담 실태는 가사보조자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사무직 기혼여성 가정의 가사보조자 실태를 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본 것처럼 사무직 기혼여성 가정의 가사보조자의 비율은 50.7%로 매우 높은 편이다. 선행연구들에서 가사보조자의 비율이 일반가정은 20%내외(문숙재 외, 1997; 이기영 외, 1997; 조미환 외, 1997)이나 취업부인 가정의 경우는 이보다 높게 나타나고(이미숙, 1995; 서지원, 1997), 특히 자녀가 어릴 경우 자녀의 대리양육인이 있었다는 비율이 80%까지 나타나기도 한다(서지원, 1997:61).

<표 3>에서 가사보조자가 있다고 응답한 사례의 가사보조 실태를 분석해 보면, 가사보조자는 주로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어머

1) 본 조사대상자의 소득은 월 119.6만원, 근무연수는 9.4인데 비해, 1996년 전체 사무직 여성의 월평균 소득은 96.3만원이고, 평균 근무연수는 3.8년이다(노동부, 1997).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43)

변수	항목	빈도(%)	변수	항목	빈도(%)
부인연령	~29세	40 (28.2)	남편연령	~29세	12 (8.5)
	30~34세	59 (41.5)		30~34세	55 (38.7)
	35~39세	34 (23.9)		35~39세	52 (36.4)
	40세 이상	9 ( 6.3)		40세 이상	23 (16.2)
	평 균	32.4세		평 균	35.0세
부인교육수준	고 졸	70 (49.6)	남편교육수준	고 졸	26 (18.6)
	전문대졸	30 (21.3)		전문대졸	24 (17.1)
	대 졸	36 (25.5)		대 졸	78 (55.7)
	대학원졸	5 ( 3.5)		대학원졸	12 (18.6)
부인소득	~100만원	62 (45.3)	남편소득	~100만원	21 (15.6)
	101~150만원	59 (43.1)		101~150만원	61 (45.2)
	151~200만원	16 (11.7)		151~200만원	33 (24.4)
	200만원 이상	0 ( 0 )		200만원이상	20 (14.8)
	평 균	119.6만원		평 균	167.5만원
부인의 주당 수입노동시간	~55시간미만	29(20.9)	남편의 주당 수입노동시간	~55시간미만	15(11.0)
	55~65미만	94(67.6)		55~65미만	71(52.2)
	65~75미만	16(11.5)		65~75미만	38(28.0)
	75시간 이상	0 ( 0 )		75시간 이상	16( 8.8)
	평 균	58.1시간		평 균	63.2시간
부인의 성역할 태도 점수	2.76		남편의 성역할 태도 점수	2.46	
결혼년수	~1년미만	25(19.6)	가사보조자 유무	있 다	72(50.7)
	1~ 5년미만	51(35.9)		없 다	70(49.3)
	5~10년미만	38(26.8)	6세이하의 자녀	있 다	86(60.1)
	10년이상~	28(19.7)		없 다	57(39.9)
	평 균	5.5년			

\* 변수별 무응답의 처리로 빈도의 합계에 차이가 있음

니의 비율이 50.7%, 친정어머니의 비율은 36.6%였다. 이는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은 시모나 친정모와 동거하는 경우 이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며(한국여성개발원, 1998: 60-62), 특히 사무직 부인의 가사노동은 전문직이나 생산직에 비해 시모나 친정모와의 동거가 주요 영향요인으로(이미숙, 1995: 80-81) 나타난 연구결과에서도 설명되고 있다. 가사보조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사보조자의 역할이 주로 아이를 돌보는 일에 집중되어 있어서 아이돌보는 일을 보조한다는 비

율이 81.7%이다. 이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가 돌보는가라는 질문에 81.3%가 가족·친지·할머니가 돌본다고 응답했으며, 파출부나 가정부가 4.5%, 그 외는 동네 놀이방이나 유아원 등이라고 응답하였고 직장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한 사례도 없었다. 즉 아직 사무직 기혼여성 가정의 자녀는 개별 가정 차원에서 양육되고 있고, 이는 주로 확대가족의 부모세대에 의해서 수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가사보조자의 1주일당 보조회수를 보면,



〈표 3〉 사무직 기혼여성 가정의 가사보조 실태

(N=72)

변 수	항 목	빈도(%)	변 수	항 목	빈도(%)
가사보조자의 종류	시어머니	36(50.7)	가사보조의 내용*	아이돌보기	58(81.7)
	친정어머니	26(36.6)		청 소	28(39.4)
	이모·고모	3( 4.2)		빨 래	22(31.0)
	파 출 부	2( 2.8)		식사준비	15(21.1)
	기 타	4( 5.6)		살림살이	8(11.3)
보조의 주당 횟수	1~2회	5( 7.7)	1회당 시간수	1~ 6시간	19(30.2)
	3~4회	1( 1.5)		7~12시간	25(39.6)
	5~7회	59(90.8)		13시간이상	19(30.2)

\* 각 항목에 대해 보조하는가에 대한 %임

1주일에 5회이상인 경우가 90%를 넘고 있으며 보조 시간도 상당히 길어서 13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0%를 넘고 있다. 이를 통해 확대가족의 부모 세대가 가사를 보조하게 되면, 대부분 동거를 의미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무직 기혼여성의 가정에서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대부분의 가사보조자는 아이를 돌보는 일을 집중적으로 보조하고 있으며, 이들은 동거하는 부모 세대이다.

결국 사무직 기혼여성들은 결혼퇴직제의 폐지로 어렵게 직장생활을 계속하다가도 자녀양육을 개별 가족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으면 더이상 직장생활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다. 사무직 기혼여성의 65%가량이 자녀문제로 사직을 고려했다는 응답(한국여성민우회, 1994)에서도 나타나듯이 자녀양육이 사무직 기혼여성의 취업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사무직 기혼여성의 취업지속을 결정하는 요인이 대리양육인의 존재 유무보다는 유급 산전산후 휴가나 이용 가능한 보육시설의 영향이 더 크다고 한 논문(서지원, 1997; 77-81) 결과는, 현실적으로 개인적인 가사보조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사회적 지원을 고려하게 되고 사회적인 지원이 있었다면 취업을 계속할수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2) 부부간의 가사노동 분담 실태

사무직 기혼여성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 실태는 시간사용 일지를 통해 평일과 휴일의 가사노동시간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는데, 가사노동시간은 요일에 따른 편차를 줄이기 위해 주당 가사노동시간으로 환산하였다. 또 부부의 가사분담 실태를 남편의 상대적 가사분담률과 남편의 가사노동 수행에 대한 부인의 평가를 통해서도 분석하였다.

〈표 4〉에서 보면, 사무직 기혼여성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은 평일 부인은 2시간 40분 남편은 35분의 가사노동을 하고 있고, 휴일에는 부부 모두 가사노동시간이 증가하여 부인은 6시간 7분, 남편은 2시간 38분의 가사노동을 하고 있다. 평일 부인이 가장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가사노동은 조리 및 식생활관리이며 다음이 자녀 및 가족돌보기이고, 남편은 자녀 및 가족돌보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휴일에는 부인과 남편 모두 자녀 및 가족돌보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자녀 및 가족돌보기는 부모나 친척관련일들이 포함되어 남편의 참여가 더 증가 하고 있다. 주당 가사노동시간을 보면, 부인은 23시간 26분, 남편은 7시간 7분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부인이 1주일 동안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가사노동은 조리를 비롯한 식생활관리이고, 다음이 자녀 및 가족 돌보기이다. 남편은 자녀 및 가족돌보기에 보내는 시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부분은 시장

보기·은행일 보기의 주당 13분이고, 그 다음이 세탁 및 의생활관리로 나타났으며, 부인은 시장보기나 은행일 보기에 사용하는 가사노동시간이 가장 적었다. 남편이 수행하는 가사노동시간은 70% 이상이 자녀 및 가족돌보기에 편중되어 있어서, 부인이 다양한 가사노동을 담당하는 것과는 시간의 차이로만 설명할 수 없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선행연구들(박주희, 1995; 조미환 외, 1997)에서 지적된 남편의 가사참여가 반여가의 성격이 있는 가사노동에 집중되어 있다고 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를 보면, 평균 2.88점으로 '가끔 하는 편'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부인은 남편이 청소나 주생활관리에 관련된 일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3.65), 다음은 자녀돌보기(3.13), 가장 수행을 하지 않는 가사노동은 세탁 등 의생활에 관련된 일(2.06)인 것으로 인지하고 있었다.

3)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무직 기혼여성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해 보기 위해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5>에 나타나 있다.

<표 4> 사무직 기혼여성 부부의 가사분담 실태

(N=143)

가사노동내용	부인가사노동시간 (시간.분)			남편가사노동시간 (시간.분)			남편의 분담비율(%)	남편의 가사수행 실태
	평일	휴일	주당	평일	휴일	주당		
조리·식생활관리	1.21	1.59	10.11	04	10	33	4.8	2.22
청소·주생활관리	16	42	2.28	04	19	53	22.8	3.65
빨래·의생활관리	15	48	2.35	02	03	16	7.5	2.06
자녀·가족돌보기	42	2.24	7.17	24	2.03	5.12	39.5	3.13
시장,은행일보기	06	14	55	01	03	13	19.3	3.01
총가사노동	2.40	6.07	23.26	35	2.38	7.07	20.9	2.88

1: 남편노동시간/(부인노동시간+ 남편노동시간)\* 100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비율을 보면, 부부 가사노동의 20.9%를 분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부인이 79.1%를 분담하고 있는 것이다.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비율이 가장 높은 영역은 자녀 및 가족돌보기로 39.5%를 분담하고 있으며, 분담비율이 낮은 가사노동은 식생활관련 노동의 4.8%, 의생활관련 노동의 7.5% 등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남편의 절대적인 가사노동시간과 상대적 가사노동분담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이 가장 적은 영역은 시장 및 은행일 보기, 빨래 및 의생활관리 영역의 순이나 이와는 달리 남편의 상대적 분담비율은 조리 및 식생활영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부인이 평가한 남편의 가사노동 수행 실태

<표 5>에서 부인의 주당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6세이하의 자녀 유무( $\beta=.26$ )와 자신의 주당 수입노동시간( $\beta=-.20$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은 무엇보다 어린자녀가 있을 때 증가하고, 자신의 수입노동시간이 길어지면 감소하게 된다.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역시 6세이하의 자녀 유무( $\beta=.26$ )와 자신의 수입노동시간( $\beta=-.22$ )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과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신의 수입노동시간이 길어지면 가사노동시간은 짧아지고, 어린자녀가 있으면 가사노동시간은 길어진다. 6개 독립변수로 이루어진 회귀식에 의해 부인의 가사노동시간은 18.0%,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14.2%가 설명되고 있다.

즉 사무직 기혼여성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은 시간

〈표 5〉 부부간의 가사노동 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한 종다회귀분석

독립변인	종속변인		남편의 주당 가사노동시간		남편의 주당 가사노동시간		남편의 주당 가사노동시간	
	β값 유의도		β값 유의도		β값 유의도		β값 유의도	
남편의 주당 수입노동시간	.10	.265	-.22	.015	-.24	.006	-.21	.027
부인의 주당 수입노동시간	-.20	.020	.12	.162	.23	.007	.18	.052
부인의 소득비율	-.08	.351	.14	.119	.21	.017	.07	.476
남편의 성역할태도	-.11	.197	.01	.956	.08	.359	.34	.000
부인의 성역할태도	-.16	.069	-.02	.868	.00	.969	.03	.767
6세이하 자녀유무 <sup>1</sup>	.26	.003	.26	.003	.20	.017	.18	.062
R <sup>2</sup>	.180		.142		.196		.227	
F값	4.35***		3.29**		4.81***		4.66***	

1: 6세이하 자녀 유무를 가변수 처리함(없음=0) \*\* p<.05 \*\*\* p<.001

자원변수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다. 부부모두 수입노동시간의 영향으로 이용가능한 시간자원이 부족할 때 가사노동시간은 감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자녀가 있어서 가사노동의 요구가 있으면 가사노동시간은 증가하게 된다.

부부간의 가사노동 분담 정도를 알 수 있는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 비율(부인의 가사노동 분담 비율은 = 1-남편의 가사노동 분담 비율이 되므로 β계수는 방향이 반대이고 값은 같다)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남편의 가사분담 비율을 통해서 살펴 보면,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은 자신의 주당 수입노동시간이 적을수록(β=-.24), 부인의 주당 수입노동시간이 많을수록(β=.23), 그리고 부인의 소득비율이 높고(β=.21),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β=.20)에 그 분담 비율이 높았다.

즉, 상대적인 남편의 가사노동참여는 시간자원변수와 상대적 자원변수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들은 이용가능한 시간자원이 있고 시간사용에 대한 수요가 있으며 부인의 경제적 자원이 더 많을 때, 가사노동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된다. 남편의 가사노동분담 비율은 회귀식에 의해 19.6%가 설명되고 있다.

한편, 부인이 평가하는 남편의 가사노동 수행 실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남편의 성역할태도(β=.

34)와 남편의 수입노동시간(β=-.21)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역할태도가 근대적이고 주당 총 수입노동시간이 짧은 남편을 둔 부인들이 남편의 가사노동 수행이 많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부인이 인지하는 남편의 가사노동수행은 평소 남편의 성역할태도에 의해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다음은 남편의 수입노동시간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사무직 기혼여성 가정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들 부부의 가사노동분담실태와 가사노동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사무직 기혼여성들은 다른 직종의 취업기혼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령이 낮아서 대체로 자녀출산 및 양육초기에 해당하였다. 그러므로 이들 가정에서는 가사보조자의 비율이 높았고, 가사보조자들은 친정어머니나 시어머니가 대부분이었으며, 주로 자녀돌보기를 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무직 기혼여성들의 주당 가사노동시간은

평균 23시간 26분이며, 남편의 주당 가사노동시간은 평균 7시간 7분이다. 부인은 조리 및 식생활관리 영역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고, 남편은 자녀 및 가족돌보기 영역에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하는 반면, 가장 적은 시간을 사용하는 영역은 부부 모두 시장보기 및 은행일 보기 영역이었다. 한편, 남편의 상대적인 가사분담 비율은 20.9%이며, 분담비율이 높은 영역은 자녀 및 가족돌보기이고, 분담비율이 가장 낮은 영역은 조리 및 식생활관리 영역이었다. 그러나 부인이 평가한 남편의 가사노동 수행은 청소 및 주생활관리 영역에서 수행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무직 기혼여성부부의 가사노동분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도 가사노동분담의 측정변수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부부의 절대적인 가사노동시간은 자신들의 수입노동시간과 6세이하 자녀의 유무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서 시간자원변수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한편, 남편의 상대적인 가사노동분담 비율은 시간자원변수와 상대적 자원변수인 부인의 소득비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부인이 인지한 남편의 가사노동 수행은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자녀가 어린 사무직 기혼여성 가정에서는 가사보조자의 비중이 크며, 부부간의 가사노동분담은 분담의 측정변수에 따라 분담의 정도 및 참여하는 영역에서 성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또 부부간의 가사노동분담은 이용가능한 시간자원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는 이들이 수입노동시간이 긴 맞벌이 부부로 시간자원이 부족할 뿐 아니라, 특히 이들의 연령이 주로 30대이고 자녀가 어려서 가사노동에 대한 시간수요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사회에서 기혼여성의 취업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취업기혼여성들은 직장생활과 함께 자녀양육을 포함한 가사노동의 거의 대부분을 개별가정 차원에서 해결하고 있다. 취업기혼

여성의 과중한 노동부담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취업기혼여성의 노동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사회적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사무직 기혼여성과 같이 자녀의 연령이 어린 여성들을 위한 자녀양육 시설의 확충이 시급하다. 구체적으로 만 2개월에서 만 3세이하의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양육시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사무직 기혼여성 가정과 같이 자녀양육이 개별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자녀양육의 보조자로 동거하게 된다. 그러나 자녀가 성장한 후 동거하던 부모세대는 노년이 되고, 이때는 노부모를 부양하는 책임이 있게 된다. 그러므로 가사보조자에 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실태 파악과, 이들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이나 가사노동분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층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부부간의 가사노동분담은 절대적인 가사노동시간이나 상대적인 가사노동분담 비율, 가사노동의 수행 실태 등 어느 한 측면으로만 측정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측면의 측정을 포괄할 수 있는 가사노동분담 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1) 김태홍·문유경(1995). 해방이후 사무직 여성의 지위변화와 전망. 한국여성개발원. 광복이후 여성의 지위변화와 전망.
- 2) 노동부(1997). 노동통계연감
- 3) 유희정(1991). 계급의 정치와 성의 정치: 사무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학연구회 편. 사회계층 -이론과 실제. 서울: 다산출판사.
- 4) 문숙재·조성은(1995). 남편의 가사노동 참여에 관한 방법론 비교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139-149
- 5) 문숙재·허경옥·홍윤정(1997). 부부간 가사노동분담과 공평성 인지도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5(2), 345-358
- 6) 박민자(1992). 부부관계의 평등성, 여성한국사회

- 연구회편, 한국가족의 부부관계, 71-109
- 7) 박주희 · 이숙현(1995), 취업부부의 가사노동 시간과 성별 분리 정도, *Yonsei J. of Human Ecology*, Vol. 9, 83-97
  - 8) 서지원(1997), 사무직 기혼여성의 출산후 취업지속 결정요인, 서울대 석사학위청구논문
  - 9) 심광숙(1990), 하위사무직 여성의 고용형태 변화에 관한 사례연구. 연세대석사학위논문.
  - 10) 이기영 · 이연숙 · 김희숙 · 조희금(1997), 한일양국 근로자 부부의 가사노동분담,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2), 97-108
  - 11) 이미숙(1995), 부인의 취업유무와 직종에 따른 부부의 가사 및 자녀양육수행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청구논문
  - 12) 이방운(1989), 하위사무직 여성노동자의 상태에 관한 일 연구. 이화여대석사학위논문.
  - 13) 조미환 · 임정빈(1997), 기혼남성의 가사노동참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369-386
  - 14) 조옥라(1985), 사무직여성의 일, 사회관계, 결혼관에 관한 조사연구, 이화여대출판부
  - 15) 조 은(1996), 절반의 경험 절반의 목소리, 서울: 미래미디어
  - 16) 조희금(1997), 사무직 기혼여성부부의 생활시간구조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1), 1-14
  - 17) 조희금(1998a), 기혼여성의 생산직 참여배경과 노동부담, 대한가정학회지, 36(2), 161-172
  - 18) 조희금(1998b), 취업기혼여성의 노동부담 및 대처방안,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1), 125-139
  - 19) 한국여성민우회(1989), 사무직 여성의 현실과 운동. 서울: 도서출판 석탑.
  - 20) 한국여성민우회(1994), 계간 사무직여성. 1994 겨울호.
  - 21) 통계청(1994), 1963-1993 지난 30년간 고용시장의 변화-경제활동인구조사 30년-.
  - 22) 한국여성개발원(1994, 1997), 1994, 1997여성통계연보.
  - 23) 한국여성개발원(1998), 취업주부의 역할분담과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 24) Blair, S.L., & Lichter, D.T.(1991), Measuring of division of household labor : Gender segregation of housework among American couples, *J. of Family Issues*, 12(1), 91-113
  - 25) Horiuchi, K., Hiroko, A. & Ito, J.(1997), The actual situation of the division of housework between husbands and wives: From the viewpoint of time use, *J.of Home Economics Japan*, 48(3), 209-214
  - 26) Harvey, Andrew S.(1993), "Quality of Life and the Use of Time Theory and Measurement", *J. of Occupational Science* Vol. 1-2, 27-30
  - 27) Shelton, Beth Anne & John, Daphne(1996),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Annual Review Sociology* Vol. 22, 299-322